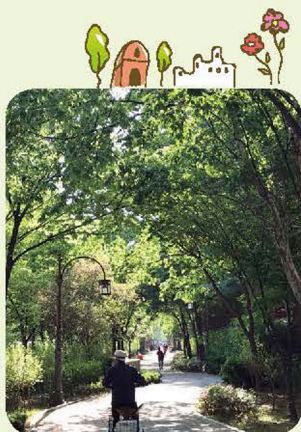


*대중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이 제시한 대중들녘 국가농업생태공원 구상도 (부천Y 회원 김현숙 민화가 재능기부)



사랑



어울림



꿈



광장

- | | | | |
|----|---|----|---|
| 01 | 머리글 2 | 06 | 회원광장 30 |
| | 소의치국(小醫治國) 박중훈 | | 미세먼지 나뭇에도
환기는 꼭! 윤진이 |
| 02 | 교실탐방 4 | | [문화산책] 함께 걷는다
「풀뿌리운동, 새로운 복원」 왕정현 |
| | [아기스포츠단]
‘지구의 날’ 환경나눔장터를
마치고... 진수연 | | [부천Y 시민평화대행 회복적정의 워크숍]
‘회복적 도시를 꿈꾼다’ 권은숙 |
| 03 | 지역이슈 7 | 07 | 만화로 보는 밥상특특 37 |
| | [대장들네 생명포럼]
미래세대를 위한 대장들네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최진우 | | 밥상여섯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자!
 연은미 |
| | 동네한바퀴 산책을 하며 얻은
녹지의 소중함에 대하여 채시은 | 08 | 우리 생활문화 이야기 (35) 39 |
| 05 | 세상을 보는 창 ①, ② 18 | | 좋은 마을 만들기 한면희 |
| | 한정숙, 서숙경 | 09 | 부천Y 이모저모 41 |
| 06 | 회원광장 20 | | 주요일정 및 클럽일정 42 |
| |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
최진우 무소속 시민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부천Y 시민정책 100인클럽의 시민후보]
최진우 후보의 생활정책 | | |

발행인 김명주 편집인 김기현 발행일 2018년 6월 5일 발행처 부천YMCA
광장지재단 박중훈, 한정숙, 왕정현, 김현주, 노진영, 연은미, 박명애, 박다정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69번길 42(중동) 전화 032)325-3100
팩스 032)325-3108 홈페이지 www.pcmca.or.kr 디자인·제작 신명기획 02)2273-6128



한국YMCA목적문

한국기독교청년회는 젊은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삶을 따라 함께 배우고
훈련하며, 역사적 책임의식과 생명에 대한 감성을 일구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며, 민중의 복지향상과 민족의 통일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으로써 이 땅에 하느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YMCA새 목적문 전문, 1976년 제정, 2014년 개정)

소의치국(小醫治國)



박 종 훈

(부천Y 중경이사장, 삼화한의원 원장)

“소의치병(小醫治病) 작은 의사는 병을 고치고,
중의치인(中醫治人) 더 나은 의사는 사람을 고치고,
대의치국(大醫治國) 큰 의사는 나라를 고친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의사의 역할을 정의한 유명한 말이다. 지질한 의사는 이미 생긴 병을 고쳐 돈 잘 버는 의사일 게다. 사람을 다스리는 의사라면 우리가 잘 아는 동의보감의 ‘허준’이나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생각하자. 세상을 바꾸는 이라면 의사라기보다 ‘예수’처럼 성인이 맞을 것이다.

부천은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야도(野都)였다. 그런데 야당이 시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자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시정부는 독단과 독선으로 토건개발정책을 끊임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그것도 시민과 대화나 소통을 전혀 외면한 채, 그러고도 구호는 ‘시민이 시장이다’이다. 시의회는 견제는커녕 거수기 노릇을 하며 일조를 한다. 부천의 지방정치는 현재 여당의 일당독재라 할 수 있다. 여·야를 떠나 ‘그들만의 리그’로 기성정치인들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부천Y는 수없이 고언과 대안을 제시하며 소통을 주장했으나 우이독경이었다.

부천Y는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초대의회에 최순영 회원을 진출시켜, 회원과 시민이 더불어 ‘담배자판기철거조례’를 제정하는 등 훌륭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결과로 부천이 시민운동의 성지로 발돋움하는 역사와 전통을 이룩했다. 오는 6·13지방선거를 맞아 부천Y의 새로운 대안 모색은 필연이자 사명이다.

대안은 두 가지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시민과 지역의 활동가를 묶어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시민정치 정당당당’의 산파역을 맡아 혈기왕성한 사람들 뭉쳐서 댔다. 또 하나는 부천Y 내에서 지방선거 참여였다. 부천Y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선거참여는 간단한 결정이 아니었다. 게다가 예전 96년 시장선거에 당시 총무가 출마하며 내홍을 겪은 트라우마도 있었다. 결국 Y는 새로운 주체를 꾸려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클럽’은 그렇게 창립하였다. ‘100인클럽’은 지방선거를 맞아 살고 싶고 지속가능한 부천을 위해 시민생활권을 강화하고, 불통과 토건개발의 지방정치에 적극적인 참여로 시민주권을 확장하며, 정치 불신과 혐오를 넘어 축제 같은 선거문화를 진작시키기로 했다. 8차례의 숙의토론을 거쳐 대리인을 뽑아 무소속시의원 후보를 내기로 했다. 클럽회원이자 환경전문가인 ‘최진우’는 우리가 찾는 참 좋은 후보였다. 이에 ‘100인클럽’은 이 과정과 대리인 선출을 기자회견으로 천명하고 선거사무소도 개설하였다.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풀뿌리 선거, 공동체 선거,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즐거운 선거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

우리는 이미 기존의 선거형태를 벗어나 새로운 방향과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역사에 ‘100인클럽’ 공동대표로 봉사하게 됐다. 그야말로 어쭙잖은 ‘작은 의사’가 ‘큰 의사’의 흉내를 내고 있다. 잘못하면 뱀새의 가랑이가 찢어지게 생겼다. 다만 미웁함과 회원들의 믿음으로 감사하며 노뚝들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아기스포츠탄

‘지구의 날’ 환경나눔장터를 마치고...



진 수 연 (늘푸른반 김나은엄마)

매년 4월말이면 YMCA 공동체한마당이라는 것을 한다. 올해도 작년과 같이 환경나눔장터를 하기로 하고 몇 주 전부터 각 반 엄마들이 모여 어떠한 물품을 팔고 나눌 것인지 회의를 하였다. 아이들은 교실에서 지구를 아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하나뿐인 지구’라는 노래를 부르며 공동체 한마당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4월 28일 토요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하여 Y로 향했다. 입구부터 선생님들이 준비하신 플랜카드가 참여하는 모두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모두들 나눔장터에 모이기 시작했고, 참여한 부모들과 아이들이 행사

를 시작하며 노래와 율동도 하고 공동체한마당의 취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다. 사실 작년부터 미세먼지라는 변수와 장소섭외의 어려움으로 Y회관에서 진행된 2번째 행사였는데 작년보다는 정돈된 모습도 보이고 행사를 하며 나누었던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넓은 야외 공간에서 공동체한마당을 즐기며 같이 점심도 나누어 먹던 예전이 조금은 그리웠기도 했다.

이번에는 모든 나눔장터들을 골고루 참여하라는 의미였는지, 각 반마다 체험을 마치면 도장을 찍는 종이가 있었는데 아이들은 참여하는 것도 즐거워했지만 도장을 찍으며 자신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 같아서 좋아보였다.

나눔장터들을 둘러보니 환경을 생각하며 수제로 만든 청이나 쥬스, 먹거리들이 많이 있었고, 엄마들이 손수 만든 파우치나 모기퇴치제, 공장과자가 아닌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도 많이 준비되어 풍성한 나눔장터가 되었던 것 같다. 나는 아이들과 공기정화 식물을 사 왔는데 키우기도 편하고 볼 때마다 싱그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또 지구환경을 위해 개인컵을 가져와야 마실거리를 살 수 있는 반도 있었다.



개인컵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함에도 나조차도 자주 잊어버리고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을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나눔장터를 준비하면서 미리 가방에 챙겨오니 한편으로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볼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했다.

이번 나눔장터에서는 새롭게 ‘미세먼지 줄이기





캠페인' 코너가 마련되어
박사님의 설명을 듣기도
하고 질문하는 시간도 가

질 수 있었고, 익숙하게 듣기는 하였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던 대장들녘에 사는 생물들과 동물친구들에 대해서도 아이들과 스티커를 붙이며 흥미롭게 공부도 하여 아이들이 자연과의 공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10시쯤 시작되었던 행사는 12시 30분쯤 마무리가 되었고, 나눔장터에 물품이 일찍 완판된 반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짧게나마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구입한 물건들을 예코백에 넣거나 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끝나고 난 뒤 돌아보니 우리가 사용했던 쓰레기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좀 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행사를 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도 남았고, 안전사고나 규칙을 잘 지켰지만 많은 인원들이 이동하고 물품을 팔다보니 회관 여기저기를 이동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다.

이번 공동체 한마당을 통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편안한 것 보다는 불편해도 환경과 더불어 사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질이 풍요롭고 한번 쓰면 버려지는 것이 당연한 이 시대에 내가 가진 것을 누구와 나누고 아껴 쓴다는 것, 가치 있게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미래세대를 위한 대장들녘의 지속가능한 미래비전



최진우 박사

(부천시 이사, 대장들녘지킴이 시민행동 정책위원장)

부천시는 1조 8천억원을 들여 대장동 70만평 부지에 ‘친환경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부천 테크노폴리스)’ 명칭으로 산업단지, 아파트와 단독주택단지,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미니 신도시’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2020년 6월까지의 실시계획의 모든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1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25년까지 모든 개발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장들녘 논습지를 지키기 위해 작년에 구성된 ‘대장들녘 친구들’은 대장동 논 1,200평을 임대하여 가족농부 사업을 추진하였고, 생물다양성 대탐사, 재두루미 먹이주기 행사, 달력 및 엽서 만들기를 통해 대장들녘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려가고 있었다. 올해부터는 부천시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행동’은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저지를 목표로 시민운동에 나서고 있다. 대장들녘의 보전 타당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장들녘 생명포럼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의 공공성과 시민 환경권을 지키는 운동

대장들녘은 공익적 가치가 있는 땅이다. 한강과 연결된 논습지로서 **학교급식에 제공되는 친환경 쌀 생산**뿐만 아니라 재두루미, 제비, 금개구리, 땃꿩 등 다양한 **야생생물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생명의 땅**이다. 차고 신선한 바람을 생성하여 **도시의 폭염과 대기오염을 저감하고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도시의 중요한 녹색 인프라**이다. **도시 어린이들이 들판에 뛰어 놀며 개구리, 제비, 메뚜기, 잠자리를 실컷 보면서 생태감수성을 일깨우고, 생명과 공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야외 체험학습장**이다.

‘대장들녘 지키기’ 시민운동은 지속가능한 부천의 미래를 만들며 **토지의 ‘공공성’과 시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가치**가 있다. 대장들녘의 토지는 사고 팔수 있는 ‘사유재’이지만 그 **환경은 우리가 지켜야 할 ‘공유재’**이다. 우리는 논습지가 만들어 낸 차고 시원한 공기, 풍요로운 지하수와 토양, 다양한 못생명의 서식지, 아이들의 생태감수성을 일깨우는 자연놀이터, 협력과 공생의 농업공동체 유산을 미래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한다. **대장들녘의 공익적 가치를 사유적 개발에서 지켜내고, 공공의 도시정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이번 지방선거 과정을 적극적인 시민운동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Why?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부천의 바람길이자 최대 녹지인 대장들녘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기질을 정화시켜주는 바람길이자 37개종의 법적보호종이 살고 있는 대장들녘을 환경적, 지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장들녘에 대해 널리 알리고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 텀블벅을 진행합니다.

How?



텀블벅 사이트에 들어가주세요
<https://tumbbug.com/>



오른쪽 상단에 프로젝트
둘러보기를 눌러 검색창에
재두루미를 검색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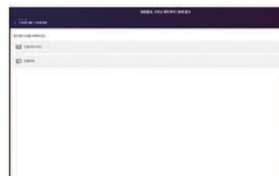
대장들녘,그리고 재두루미 | 함께살다
페이지를 클릭하여 들어가주세요
오른쪽 하단의 프로젝트 밀어주기를
클릭합니다.



원하는 선물을 선택합니다.
선물과 관계없이 추가 후원이
가능합니다 입력된 값 이상을
입력하고 빨간색
화살표를 클릭해주세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네이버,
페이스북, 이메일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시고
결제를 진행해주세요.

‘대장들녘의 미래비전’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부천시장 후보들에게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네차례 ‘대장들녘 생명포럼’에서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 미래세대를 위한 대장들녘의 지속가능한 비전으로 ‘국가농업생태공원’으로 친환경개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장후보 3인의 답변내용과 그에 대한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의 입장을 실습니다.

부천시장 후보 3인의 정책질의 답변 내용과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의 입장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은 부천시장 후보 3인¹⁾(민주당 장덕천 후보, 바른미래당 이승호 후보, 무소속 윤병국 후보)에게 “1. 대장동 산업공단 개발(70만평)에 대한 후보의 입장과 근거 2. 대장동 산업공단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행위를 중지하고, 내실있는 공론화를 통한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인지”를 정책 질의한 바 있으며, 후보들의 답변을 접수하였다.

대장동 산업공단 개발과 관련하여 **민주당 장덕천 후보**는 (기존 김만수 시장과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며) “기업유치, 고용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1) 자유한국당 최환식 후보는 뒤늦게 결정되어 추후 답변하겠다고 함.

바른미래당 이승호 후보는 “시민주권 거버넌스 모델도시”를 강조하며 “국가농업생태공원이나 생태관광단지 조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무소속 윤병국 후보**는 “대장동 개발은 환경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대장동 개발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내실있는 공론화를 통한 민주적 결정에 대하여 **민주당 장덕천 후보**는 “보존론과 개발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임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끊어진 부천의 미래성장동력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적극 개발할 예정임”이라고 하고 있다. 반면 **바른미래당 이승호 후보**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지하고, 대장동 산업공단 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재개발사업, 문예회관 신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무소속 윤병국 후보**는 “모든 행정행위를 중지하고, 농업생태공원을 구상할 수 있으나 이것 역시 1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있다.

부천은 인구밀도 전국 2위, 산림면적 전국 최하위, 미세먼지 오염 전국 7위, 불투수율 전국 최하위로 환경적으로 열악한 도시이다. 120만평 대장들녘은 분지형 도시 부천의 바람길이며, 법정보호종 35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부천시장 후보 중 **바른미래당 이승호 후보**, **무소속 윤병국 후보**는 “부천의 열악한 환경조건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대장들녘의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장덕천 후보**는 이런 인식 자체가 결여되어 있으며 “산업단지를 개발하되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비오톱을 조성하겠다.”고 하나 이는 실효성 없는 말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장덕천 후보**는 “보존론과 개발론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은 주지의 사실이지만.....적극 개발할 예정”이라고 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4년간 부천시는 주요한 정책결정을 하면서 제대로 된 시민의견 수렴 과정 없이 추진하여 갈등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시민들은 새로운 부천시장이 들어설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장동 산업단지’의 경우 현재 용역결과보고 외에 단한차례의 시민설명회나 주민의견 수렴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 장덕천 후보는 **부천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70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어떤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책적 정당성을 가져갈 것**인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민주당 장덕천 후보의 일방적 태도에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며 이후 대장동 산업공단이 부천시민의 삶을 악화시킬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환경적 피해와 함께 대장들녘의 학교급식 친환경 쌀, 생태계 보고(寶庫)를 지키기 위한 시민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또한 지방선거 후 바로 시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여러분은 어떤 대장들녘을 원하시나요?

부천시가 추진중인 대장동 산업단지 개발 조감도



'대장들넌지키기 시민행동'이 제안하는 국가농업생태공원



동네한바퀴 산책을 하며 얻은 녹지의 소중함에 대하여



채 시 온 (회원운동팀 실무자)

지난 5월 1일, 부천의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중 무참히 잘려나간 나무들의 행한 풍경들이 눈에 들어왔다. 녹음이 푸르려야 할 5월에, 행한 나무들만 있는 아파트의 가로수 풍경이 나의 눈에는 무척이나 생소했다. 이를 계기로 주변 동료 및 전문가들과 아파트조경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계기가 되었다.

‘아파트 조경에 대한 생각’

무척이나 생소하게 느껴졌던 풍경에 대해 거주하시는 주민들과 우연히 이야기 나눌 수 있었다. 녹음이 푸르려야 할 아파트 조경 가로수가 한겨울 나무처럼 앙상한 때에만 남아있는 풍경이 생소한데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여쭙 보았다. A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저런 푸른 나무가 도대체 왜 잘려나갔는지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나무를 자른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하였고, B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은 “나무를 다듬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앙상하게 잘려진 모습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정말 주민동의 없이 나무 전지작업이 진행 되었는지 관계자들에게 확인해 보았다.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전체 주민동의를 구하진 않았으나, 짙은 녹음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 내에 시야확보(조망권)를 원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전지작업을 했다.”라고 답하였고, 이후 제기된 문제 중 하나였던 미관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작업자들이 전문가가 아니라 미관이 아름답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며, 점점 나아질 것이다.”라고 답변 하였다.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고, 외부 업체 입찰을 통해 전지작업을 하였다. 전지작업 결과가 그렇게 이상하냐?”고 되물었다.

‘아파트 조경에 대한 환경심리학적 관점’

아파트 조경권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살펴보았다. 아파트단지 조경에 대한 주민의 심리분석에 대한 논문¹⁾에서는, 아파트 단지 조경에 대한 주민의 인식에 대한 선호도는 경관성, 웰빙성, 쾌적성, 환경성 순으로 중요성이 평가되었다고 정리하였으며 조경시설물의 경우 산책로, 휴게소, 의자, 놀이터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였다. 위 논문을 토대로 선호도 1위인 경관성과 조경시설물 평가 1위를 차지하는 산책로에는 반드시 나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부분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파트 조경에 대한 인터뷰에서 얻은 시사점’

아파트 단지 내 나무를 조경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나무의 우거진 녹음으로 인한 시야차단, 햇빛차단, 나무 내 해충 예방, 심야시간 주민 안전시야 확보, 무성한 나뭇가지로 인한 주차시야의 어려움 해결” 등이 주된 이유였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진행된 아파트 가로수의 과한 전지작업의 결과는 5월에 녹음이 짙고 아름다워야 할 아파트의 전망이 한겨울 나무를 보는 듯 뼈대만 앙상한 나무들이 꽃혀있는 듯 한 느낌으로, 주민들의 만족을 위해 진행된 작업이 주민들의 불만을

1) ‘아파트 단지 조경에 대한 주민의 심리분석’, 이동훈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2016년 8월)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나무와 함께한 부천 그리고 미래적 대안’

신도시를 개발했을 때 심었던 어린 나무가 이제는 제법 몸집이 굵어져 주민의 쉼터가 되는 아름답리 가로수로, 때론 태풍이나 자연재해 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몸집이 커진 나무를 매번 주민동의 없이, 혹은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무참히 뼈대만 남기는 과한 전지작업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조경 전문가의 제안은, 번거



산책 중 보았던 과하게 전지작업이 된 나무

좁고 불편하지만 너무 좁은 간격으로 심겨있는 나무를 필요한 다른 장소에 옮겨 심는 방법과 지나치게 짧게 전지작업을 하기보다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의 전지작업을 하는 것이 미관적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감과 나무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산책을 하며 우연히 보았던 양상한 나무의 풍경으로 인해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의 논문, 조경 전문가와의 실질적인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나무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과 조경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내년 이맘때는 양상한 때대만 있는 나무가 아닌, 녹음이 푸르른 나무,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가로수를 볼 수 있길 바란다.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풍성한 아파트 사잇길’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

최진우 무소속 시민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난 5월 2일,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이하 ‘100인 클럽’) 공식선출 후보로 부천시의회(다선거구: 약대, 중1,2,3,4동) 시민후보로 뛰고 있는 최진우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열렸다.

정종원 100인클럽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소식은,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용인의 노래모임인 ‘밤챙알챙 마을합창단’ 이해경 지휘자의 지휘로,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함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시작되었다. 이 곡은 정진 소장(회복적생활교육연구소, 부천YMCA 이사)이 개사한 곡으로, 자연이 살아있고 마을이 회복되는 부천을 희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인 클럽’의 박종훈 대표는 인사말에서, “계속 살고싶은 지속가능한 부천



을 만들기 위해, **시민생활권을 강화하고 독단과 독선의 지방정치를 참여로 바꿔 내 시민 주권을 확장하자**며 “더불어 정치불신과 혐오를 넘어 잔치값고 축제같은 지방선거문화를 진작시키자는 결의 가운데 최진우 YMCA회원을 우리 대리인으로 내보내게 되었다.”며, “부천Y는 최순영 의원을 시의회에 보낸바 있고, 담배자판기 철거조례를 제정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번엔 최진우 후보를 통해 부천Y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가겠다. 최진우 후보는 생태환경전문가로 지난 10여년간 대장들녘을 비롯해 부천의 환경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뛴 사람이다.”라고 최진우 후보를 소개했다.

비례민주주의연대 하승수 대표는 “뜨거운 열기에 깜짝 놀랐다.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압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 주권자의 시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최악의 통치를 받게 된다. 대한민국 시민이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거대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과정을 보며 한국의 지방선거가 후퇴하고 있음을 느낀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참을 수 없어서 여러 지방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부천은 풀뿌리 지방정치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다. 이번에 최진우 후보가 시민정치의 정신을 가지고 지방선거



에 도전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사를 하였다.

두번째 격려사로 부천민중연대 권오광 상임의장은 “지역사회 새로운 풀뿌리 운동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여 진심으로, 마음으로 함께 한다. 우리나라는 산업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환경은 늘 뒷전으로 밀려있다. 부천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산업공단이 들어온다면 바람길이 막히고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해 질 것이다. 부천의 환경문제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그 해결의 총대를 맨 사람이 최진우 박사다.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을 벗어나 전문성과 겸손함을 가지고 시의회에 진출한다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부천Y 기타클럽 G樂P樂의 ‘아름다운 세상, 행복의 나라로’ 기타공연이 이어졌다.

무소속으로 부천시장에 출마한 윤병국 예비후보는 연대사를 통해 “다 선거구는 부천의 행정, 교통, 교육의 중심이며, 무소속 시의원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며, “여기 모인 100인클럽 회원들이 함께 해야 한다. 저도 이 지역 현역 시의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연대의지를 밝혔다.

이날의 주인공인 최진우 후보는 “예비후보 등록 후 지역을 다니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다. 특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미세먼지와 공기에 대한 우려와 무력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중·상동 주민들은 개발사업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그 개발이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개발을 통해 우리가 잃을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해가야 하는지 논의의 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남은 예비후보 한 달 기간동안, 실제 주민들 삶의 곁에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듣고 시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일,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심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대장들널 산업단지 개발을 막아내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정년퇴임한 이신행 교수, 부천시 민햇빛발전협동조합 김종해 이사장(가톨릭대 교수), 부천YWCA 이현순 사무총장, 부천시민연합 최재숙 공동대표, 지평교회 이택규 목사 등 시민사회 대표들과 부천Y 시민정책 100인클럽 회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부천Y 시민정책 100인클럽

최진우 후보의 생활정책

부천Y 시민정책 100인클럽 회원들과
최진우 후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생활 속 이야기들을 풀어내어 함께 만든 생활정책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부천YMCA의 실천과제가 될 것입니다.
꼼꼼하게 들여다 봐주세요.

미세먼지 최악 부천, 시민불안에 공감하지 못하는 행정

- ☑ 부천 미세먼지 전국 최악 수준 국립환경과학원(2014~2016)
- ☑ 녹지비율 전국 최하위(자연지역비율 15.9% 골짜, 수목피복률 14.5% 골짜) 환경부(2016)
- ☑ 대기측정망은 5개소, 초미세먼지 측정은 3군데 불과, 4개소 옥상 설치로 시민체감도와 차이
- ☑ 시청옆 49층 2천 세대, 신중동역 홈플러스 부지 초고층 개발사업 추진
- ☑ 부천의 바람길 대장들넌 70만평 산업공단 개발로 도심의 미세먼지 재앙 예측



시민이 뽑은 대리인 최진우

"소속 정당이 없을 뿐이지 무소속은 아니다
『부천YMCA 시민정책 100인 클럽』의 후보 추대 과정을 거쳐
부천시민의 대리인으로 나섰다."

2018.05.08 | 오마이뉴스



1 시민 공감형 미세먼지 대응 행정시스템 마련

① 부천시 자체운영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모든 초등학교, 주요 도로, 근린공원에 설치 (개당 600만원)

② 부천시 자체 미세먼지 실시간 정보제공 및 경보체계 구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활용 실시간 정보제공,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문자메시지 발송

③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으로 부천형 미세먼지 저감 종합계획 마련

·수도권 미세먼지는 도로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등 2차 생성물질에서 50%이상 발생
·통과도로 영향 검토, 상습적 고농도 특별관리 지역 도출



④ 전국 최초 민관협력 미세먼지대응센터 설립 및 운영

·정보제공, 콜센터 운영, 피해예방 교육, 공기질관리 생활교육
·민관산학 협력 거버넌스 구축, 타 지자체 및 연구기관 협력
·미세먼지 시민감시단 및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2 미세먼지 저감 특별대책 추진

① 미세먼지 잡는 도시형 마을숲 조성 및 가꾸기

- 가로숲, 사잇길숲, 학교숲, 골목길숲 등 마을숲 조성
- 시민나무심기, 마을공동체정원, 옥상 및 벽면녹화·그린커튼

*도시숲은 도심의 미세먼지를 25.6%, 초미세먼지를 40.9% 감소 (국립산림과학원, 2017)



② 가로수 및 민간 큰키나무의 '강한 가지치기 금지' 조례 제정

- 수목의 대기오염 저감기능 강화, 아름다운 도시미관 형성

③ 미세먼지 고농도구간, 민감구간(학교 등) 특별관리 시행

- 살수차 확대 운행, 승용차 운행 자제, 학원버스 공회전 금지, 대기오염 스쿨존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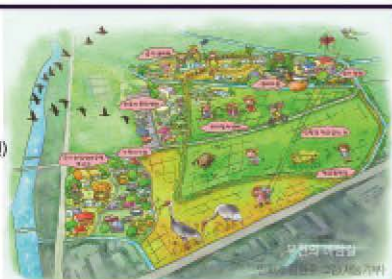
④ 외곽순환고속도로 미세먼지 저감 지붕 설치 추진

-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입증 노력, 오염자부담 요구, 지붕에 태양광발전 설치

⑤ 물이 흐르는 가로수길 조성 (신흥로~길주로)

대장동 산업공단 No 국가농업생태공원 Yes

- 산업공단 개발에 막대한 우리 세금 투입(총 사업비: 1조 8천억원)
- 부친의 바람길, 생명이 넘치는 대장들녘 지키기
- 토지 공공성과 시민 환경권을 위한 농업생태공원 개발
-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민주적 결정



3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① 전 교실 공기정화장치 시설 설치

- 학교시설 조건에 따라 전열교환기, 공기청정기, 환기장치, 미세먼지필터 등 설치
- 공기정화식물로 청정그린교실만들기 시범사업 시행

*실내 공간에 공간부피 대비 식물을 2% 도입하면 미세먼지 69%, 휘발성유기화합물 60% 감소 (농촌진흥청, 2018)

② 외부 미세먼지의 교실 유입 차단

- 신발탈이 및 에어커튼 설치, 창문형 방진필터 교체
- 학교 울타리 및 건물벽면에 미세먼지 저감 학교숲 조성

③ 간이 실내체육실, 실내 공공형 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④ 교실내 공기질 측정, 석면 등 유해환경 조사 및 후속대책 마련

⑤ 고교·유아 친환경 무상급식 전학년 실시

⑥ 중앙공원 내 기적의 놀이터 조성

- 모험심과 창의력을 심어주는 놀이터 조성
-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지역주민, 어린이 참여 시스템 구축
- 중앙공원에서 시작하여 동네 놀이터로 확대



송산사거리 1호 기적의 놀이터



서울시 동부이촌동 장의 놀이터



영광초등학교

⑦ 어린이 및 시민 눈높이에 맞춘 중앙공원 리모델링 추진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활용 공원가치 증진, 어린이·시민 주도로 프로그램 기획

4 아파트 관리비 Down 주거가치 Up

❶ 관리비, 공공요금, 계약, 조경, 법률 등 컨설팅 지원

❷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추진

❸ 공동주택 민간녹지 조경관리 지원

- 조경관리 컨설팅 및 교육, 아파트수목원 인증제 도입
- 저독성 살충제로 시청에서 병충해 방제 통합지원 및 관리

❹ 자연과 문화가 함께하는 아파트 사이길 이용 증진

- 마을 공동체정원, 시화전, 플리마켓, 음악회 등 마을별 특화 문화사업 추진



❺ 햇빛발전 지원 활성화, 에너지 절약공동체 운동으로 관리비 감소

- 미니 태양광 설치 보조금 확대 및 행정절차 지원, 에너지절약 마을 추진

❻ 이웃 간의 갈등을 평화롭게 전환하는 이웃갈등조정센터 운영

- 평화배움 마을학교 운영, 평화교육 청소년 평화활동가 양성
- 우리마을 평화문화 만들기

❼ 생활·식품 방사능(라돈, 세슘 등) 측정 및 후속대책 마련

❽ 특고압선 공사 전자파 피해영향 검증, 행정절차 재검토

미세먼지 나쁨에도 환기는 꼭!



윤진이 (부천Y 회원)

요며칠 5월의 하늘은 매우 청명했습니다. 이색적인 밤하늘의 모습에 감탄하기도 했구요. 아마 엄청 내린 비에 오염물질들이 씻겨 내려간 덕분인 듯합니다. 왜 '미세먼지 나쁨'이어도 환기를 해야 할까요?

지난번 Y에서 있었던 임종한 교수님 강의를 들으니 너무 무섭습니다. 미세먼지가 온몸에 퍼져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심혈관질환, 폐질환도 일으킨다니... 게다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폐활량이 많아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잠깐 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환기를 열심히 했지만 미세먼지가 안 좋을 때는 공기청정기만 열심히 돌리고 창문은 꼭꼭 닫아 두었습니다. 잠깐이야 괜찮았겠지만 매우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공기청정기가 걸러준다지만 실내의 포름, 라돈 (애네도 1급 발암물질) 등은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가스를 켜고 요리도 하지 않습니까. 숨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도 있구요.



이것들을 제거할 방법은
환기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며칠씩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도
많아서 더욱 환기가 어렵습니다. 효과적인 환기방법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환기요령 몇 가지를 나누고자합니다.



1. ‘미세먼지 나쁨’ 단계에서는 창문을 닫고 공기청정기를 돌립니다.
2. 고농도 시에는 ‘하루 중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참고’해 하루 한번 이상
맞바람 환기를 합니다. 시간은 20분 이상. 요리할 때는 무조건 후드를 켜고 창문
을 여셔야 합니다. 환기가 끝난 후에는 잠시 꺼두었던 공기청정기를 세게 틀어
줍니다.
3. 2006년 이후에 지어진 신축아파트에 사신다면, 기계적 환기장치(전열교환기)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주로 베란다 천장에 붙어 있습니다. 집안의 공기를 외부와
순환시켜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4. 대기질 관련 핸드폰 어플이나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문자서비스
도 유용합니다. (경기도 대기 오염정보센터 → 대기질 정보 문자 서비스 신청)
5. 그래도 미세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싫다면 ‘강제환기’ 방법을 추천합니
다. 검색하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렵지 않아요.

[주의사항]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거나(여름에 심함), 이산화질소(NO2) 수치가
높으면 환기를 자제합니다. 수치는 어플이나 에어코리아에 자세히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실내에도 환기가 꼭 필요하 듯 도시에도 바람이 통하는 길이
필요합니다. 부천에는 대장동이 바람길이지요. 녹지가 부족하고 아파트 숲에
갇힌 부천에 바람길이 막힌다면 우리는 어떻게 숨 쉬어야 할까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대장동이 소중한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황사예보 문자가 도착합니다. 아이들과 하루를 어떻
게 보내야하나 고민이 됩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높아진 미세먼지에 대한 관
심들로 긍정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믿으며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함께 걷는다 「풀뿌리운동, 새로운 복원」



광장기자단 왕 정 현

늦은 저녁, 책을 선물 받았다.
바로 읽어 본다.
읽히지 않는다. 어렵다.
그래도 계속 읽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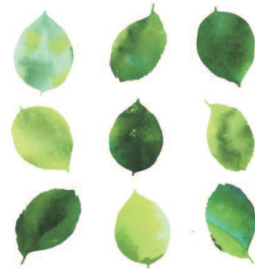
공동체는 일정 이상의 결합 정도를 가지는 관계만 의미하지 않는다. 공동체는 매우 느슨한 형태로부터 매우 긴밀하게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형태까지 다양할 수 있다. (중략) 그래야 사람들이 공동체를 단지 이상이 아닌 지금 행복하고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무언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 (p.218)

이는 마치 정상을 향해 나아가는 등산과도 같다. 가고자 하는 산 정상은 하나지만, 우리는 각각 다른 길을 따라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른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면 각기 다른 길을 따르는 이들이 모두 한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특정한 등산로만 정상을 향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진심으로 안다는 것, 즉 깨닫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 다양성에 대한 인정이 가능하고 진정한 사회적 연대도 가능하다. (중략) 물론 그럼에도 산을 파괴하며 등산하는 행위나 거꾸로 산을 내려가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다. 우리의 지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대’와 ‘투쟁’도 필요한 이유다. (p.304)



우리 동네 도로변에 울창하게 있던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사라졌다.
 나뭇가지와 나뭇잎은 보이지 않고 몸통만 덩그러니 남아있다.
 동네에 사람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늘, 바람, 나무도 살고 있다.
 나는 오늘도 나무와 함께 걷는다.
 ‘너’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무와 함께 걷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발걸음은 무엇일까?

풀뿌리운동, 새로운 복원
 이호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이루는 힘,
 풀뿌리운동 이야기



[출처]
 저자 이호
 포도밭출판사
 2017.10.13

부천Y 시민평화대학 회복적정의 워크숍 ‘회복적 도시를 꿈꾼다’



권 은 속 (뉴등대 촛불)

회복적 정의란 잘못된 관계의 훼손이 발생했을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기존의 응보적 관점과는 다르게,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과 공동체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도록 돕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과정과 제도를 의미합니다. 존중과 책임, 관계회복을 핵심가치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와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피해의 회복, 자발적 책임,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정의의 회복을 이뤄가는 정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회복적 정의’를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수년전에 부천시교육지원청에서 학부 모연수를 통해서였다. 응보적인 삶을 살았던 내게는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된 기회였다. 1년 후 큰아이 학교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화가 나고 학교선생님에 대한 원망과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다.

어떻게 대응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회복적 정의 강의를 해주신 정진 소장님이 생각이 나서 연락을 드렸다. 소장님께서 문제해결 대화모임의 조정을 맡아주셔서 학교에 대한 신뢰를 되찾았고 아이가 학교를 잘 다닐 수 있도록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학교생활을 잘 이어나가고 있다.





그 이후로 회복적 정의를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잡고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다. 이론으로 배울 때에는 현실에서 정말 적용이 될까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체험을 하게 되니 회복적 정의에 대한 절실함이 더욱 커졌다. 그리고 평화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갈등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는 사건이 일어나면 가해자의 처벌과 사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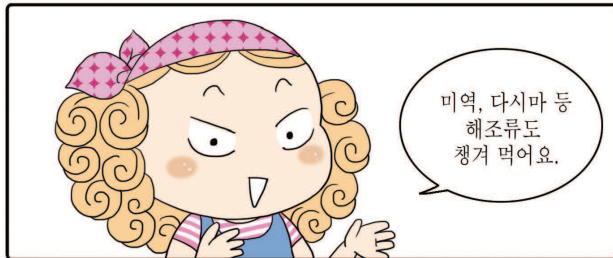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를 비롯한 공동체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을 배우고 있다.

4월부터는 부천시에서 시민평화대학이 생겨서 다시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다. 평화를 찾는 여정에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져 배움이 즐겁고 힘이 난다. 6월부터 시작되는 2차 워크숍이 기다려진다. 그리고 내가 사는 부천시가 '회복적 도시'가 되는 날을 꿈꿔본다.

드대(바사)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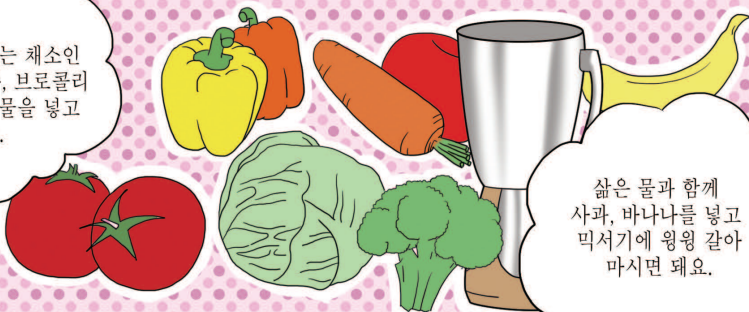
밥상 여섯.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자!

글. 그림 연은미





혼하게 살 수 있는 채소인
파프리카,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를 물을 넣고
삶아요.



삶은 물과 함께
사과, 바나나를 넣고
믹서기에 뭉뭉 갈아
마시면 돼요.

아하! 칼로리는 적게,
미량영양소는 많이
섭취할 수 있겠군요.



미세먼지에도 결국
자연식품을 먹어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것이
방법인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공복에 먹어야
몸에 좋습니다.

아하!
꿀팁!!



몸 속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채소, 과일,
뿌리채소 많이 드세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은
걸거나 자전거를 타는 등
작은 실천을 하자구요.



덤으로 매일
시원한 해변을
약속한답니다

과르르르



<마침> 다음에 또 만나요~~^^

좋은 마을 만들기

한 먼 희 (부천YMCA등대생활협동조합 이사)



“그리운 고향 마을~” 말만 들어도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나서 코끝이 찡하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우리가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알게 모르게 잃어버린 마을의 회복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렵과 채취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던 조상들이 산 좋고 물 좋은 땅을 만나서 정착하고 농경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같이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집이 모여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집은 같은 밥을 먹는 공동체이고, 마을은 같은 물을 마시는 공동체입니다. 집에서는 식구(食口)들이 한술밥을 먹고, 마을은 동네인데 동(洞)은 ‘같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마을은 작은 단위이고 자치적인 조직입니다. 비슷한 말인 고을이 큰 단위로 사또가 있고 행정 사법 기능이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두레를 만들어 공동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

니다. 특별히 농경사회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마을에는 공동 우물이 있고,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푸는 바가지는 두레박이라고 하고, 눈에 물을 대려고 낮은 곳에 있는 물을 퍼 올리던 농기구는 두레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여기저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인심이 넉넉한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갑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고, 또 후손들에게는 좋은 마을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가 자꾸 다양해지면서 공통분모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에 벽화를 그려서 방문자가 많아지면 상인들은 좋지만 주택에 사는 주민은 시끄럽기만 할 뿐입니다. 또 마을의 집값이 많이 오르면 소유자는 좋지만 세입자는 어려워집니다.

마을 일을 할 때는 우선 주민들이 참여하여 마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합의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의 순서는 환경, 교육, 안전 등 공통의 문제부터 시작함이 무난합니다. 예를 들면 “미세먼지 줄여서 숨 좀 쉬고 삼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주제로 마을의 역할을 연구함도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든 좋은 마을에서 모두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니다. 꿈은 꾸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주위에서 꾸어야 합니다. 꿈을 이룬 다음에 꾸는 것을 모두 꿈으면서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다. 꿈만 같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기스포츠단] '공장과자 안먹기' 운동 4월 2일(월)~13일(금)

지난 2주간 '공장과자 안먹기' 운동을 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공장과자의 해로움에 대해 알아보는 수업, 함께 모여 서약식, 약속나무 만들기, 공장과자실험, 인형극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공장과자를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공장과자 안먹기' 운동 기간은 끝났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장과자 안먹기'와 더불어 몸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요일정 •

부천시민평화대학: 회복적정의 워크숍 2단계

일시 : 6월 4일~26일
매주 월,화 오전 10시~오후 1시(총8회)
장소 : 6층 신나는방

정기이사회

일시 : 6월 12일(화) 오후 7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시민사업위원회

일시 : 6월 14일(목) 오후 7시
장소 : 5층 나눔방

제28회 부천시민통일문화제 여는마당

일시 : 6월 15일(금) 오후 7시
장소 : 부천시청 소통마당

청소년사업위원회

일시 : 6월 20일(수) 오후 7시
장소 : 5층 나눔방

‘대장들넌지키기 시민행동’ 금개구리 대탐사

일시 : 6월 23일(토) 오전 9시
장소 : 대장들넌 일대

아기스포츠탄

1학기 공개수업

일시 : 6월 1일(금)~6월 26일(화)

섬김지기 1박 2일 연수

일시 : 6월 8일(금)~6월 9일(토)

7세 : 2차 들살림캠프

일시 : 6월 26일(화)~6월 29일(금)
장소 : 양평 고래실마을

2차 반모임

일시 : 7월 4일(수)~7월 5일(목)

아스단 캠프

일시 : 7월 19일(목)~7월 20일(금)

여름방학식

일시 : 7월 20일(금)

어린이

역사기행

일시 : 6월 9일(토)
장소 : 다산문화유적지

자연기행

일시 : 6월 16일(토)
장소 : 파주 벽초지수목원

1학년 하룻밤캠프

일시 : 6월 22일(금)
장소 : 양평 고래실마을



체육교육팀

수영장 재등록

일시 : 6월 19일(화)~23일(토)

수영장 7월 신규접수

일시 : 6월 26일(화) 오전 8:10

장소 : 4층 안내

수능능력 테스트 : 4,5,6시 각수업

일시 : 6월 21일(목)~22일(금)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또래상담교육

일시 : 6월 7,8,20,21일 / 7월 6,11,12일

장소 : 역곡중, 상동중, 성곡중, 상일중

청소년 심성수련 집단상담

일시 : 6월 7,8,14,15,22,27,29일 / 7월 9,11일

장소 : 성주중, 소명여중, 부흥중, 상동고

청소년 평화감수성교육

일시 : 6월 21일, 7월 5일

장소 : 상일중

송내동청소년문화의집

제14회 청소년사회참여팀프로젝트 나비효과

일시 : 6월 16일(토)~11월 3일(토)

장소 : 부천 일대

순천만 생태기행

일시 : 6월 1일(금)~3일(목)

장소 : 순천, 여수 일대

UP&DOWN 아프리카로 만나는 자유 (아프리카댄스)

일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장소 : 송내어울마당 몸짓나래



특별한 날 기부

- 한정숙 이사님께서 아드님 결혼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특별한 날 기부'로 500,000원을 후원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기부

-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조합원들께서 2018년 배당금을 '청소년기금'에 기부해주셨습니다. (가정은, 김영주, 김우영, 김옥선, 박명애, 박종훈, 박혜연, 변종목, 윤진이, 장근영, 아버지교실 / 총 351,936원)

• 클럽일정 •

사진클럽 <선용>

정기모임

일시 : 6월 7일(목) 저녁 7시

장소 : 소사 스튜디오

사진출사

일시 : 6월 23일(토) ~ 25일(월)

장소 : 1번-2번-7번 국도

그린합창단

정기연습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등대생협

등대위원회

일시 : 6월 1일(금) 오전 10시

장소 : 4층 사랑방

풋볼운동회

일시 : 6월 14일(목) 오전 10시

장소 : 5층 체육관

등대협의회

일시 : 6월 25일(월) 오후 2시

장소 : 4층 사랑방

지기월례회

일시 : 6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6층 신나는방

청소년상담클럽 <디딤돌>

정기모임

일시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장소 : 5층 나눔방

월례회

일시 : 6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5층 나눔방

청소년평화교육연구모임

일시 : 6월 14, 28일 / 7월 5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 5층 나눔방

녹색가게

운영위원회

일시 : 6월 9일(토) 오후 12시

장소 : 천안 Broup

토요나눔장터 개장식

일시 : 6월 16일(토) 오후 12시

장소 : 부천시청 잔디광장 앞 인도

재활용 강좌

일시 : 7월 2일~23일 월요일마다,

오전 10시~12시

장소 : 5층 나눔방, 부천아트벙커 B39

좋은아빠모임

아빠랑 단둘이 여행

일시 : 6월 2일(토) / 장소 : 춘천

월례회

일시 : 6월 4일(월) 오후 8시

여름캠프

일시 : 7월 14(토)~15(일)

장소 : 강원도 영월 레프팅

식생활교육클럽 <쌈한돌>

정기모임

일시 : 6월 12일(화) 오후 1시

장소 : 5층 나눔방

월례회

일시 : 6월 26일(화) 오후 1시

장소 : 5층 나눔방

G樂P樂

기타우쿨렐레 강습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 오후 7시

장소 : 5층 나눔방 / 6층 신나는방

점배 소모임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6층 신나는방

철원 평화순례

아름다운 자연과 민족의 아픔이 교차하는 곳,
철원DMZ를 함께 걸으며,
곧 다가올 평화통일을 한걸음 더 앞당기는 평화순례의 시간



노동당사



소이산

● 일시 : 2018년 7월 14일(토)

시간	프로그램	비고
08:00~10:00	출발 및 도착	
10:00~11:30	승일교, 고석정	
11:30~12:30	점심	콩마을 033-455-9284
12:30~03:30	DMZ 평화순례	
03:30~04:30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피스메이커"	
04:30~05:30	소이산	
05:30~06:30	저녁	황금밥상 033-455-4408
06:30~8:00	출발 및 도착	

● 모집인원 : 40명

● 강사 : 정지석 목사, 전영숙 부장(국경선 평화학교)

● 참가비 : 2만원

문 의 : 부천Y 회원운동팀(032-325-3100)

북·중·러 접경지역 평화순례

● 일시 : 2018년 8월 27일(월) ~ 9월 1일(토), 5박 6일

● 인원 : 25명

● 일정 : 인천 - 대련 - 여순 - 비사성 - 단동 - 봉황산 - 환인 - 집안 -
장백현 - 송강하 - 백두산 서파 - 화룡 - 연길 - 훈춘 - 도문 -
용정 - 연길 - 인천

※ 항일역사유적지, 고구려 유적지, 발해유적지, 북한마을조망, 기독교유적지, 윤동주생가
(2.8독립선언과 3.1운동 99주년, 독립운동 관련 중요 유적지 중심으로) 등

● 강사 : 김흥수 교수

(목원대, 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장, 한국YMCA평화통일협의회 운영위원장)

● 참가비 : 약 130만원



문의 및 신청 : 부천Y 회원운동팀(032-325-3100)